

보도 일시	2021. 11. 2.(화) 17:00	배포 일시	2021. 11. 2.(화) 14:00
담당 부서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책임자	과장 최진 (044-203-2641)
		담당자	서기관 이동희 (044-203-2643)

##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서 사립미술관 인정적 운영 지원 약속

- 11. 2. 문체부 장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1월 2일(화) 오후 3시, 오시아이(OCI) 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사립미술관이 안고 있는 고민을 듣고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나눴다.

\* 2010년 8월 17일 개관 이후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 한국 현대 미술 작가들의 활동을 꾸준히 후원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홍정주 회장을 비롯해 지역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장 9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 사립미술관 지원 확대 요청

참석자들은 “사립미술관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다.”라며 “문체부가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미술관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큐레이터)와 교육사(에듀케이터)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립미술관 인력 지원 사업 확대, 전문인력 지속 근무환경 보장, 보조사업 미술관 자부담 경감, 노후화된 미술관 안전시설 개선 지원 등을 요청했다.

## 간담회 의견 바탕으로 사립미술관 지원 방안 마련

이에 황희 장관은 “사립미술관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 예술을 보존하고 키워온 많은 미술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부족한 공간을 채우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미술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 사용을 재개했음을 알리며, “소비할인권 사용 재개를 계기로 문화 활동이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 특히 사립미술관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쉼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성명	직위	소속
홍정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서호미술관 관장
노준의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고문	토탈미술관 관장
이경렬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수석부회장	당림미술관 관장
박춘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해든뮤지움 관장
이지현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상임이사	OCI미술관 관장
김완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사	교동미술관 관장
이성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사	신평미술관 관장
이용미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사	우민아트센터 관장
강종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정책개발위원장	자하미술관 관장